



KIEP 기초자료
19-23

2019년 12월 10일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배찬권 무역통상실장 (ckbae@kiep.go.kr, 044-414-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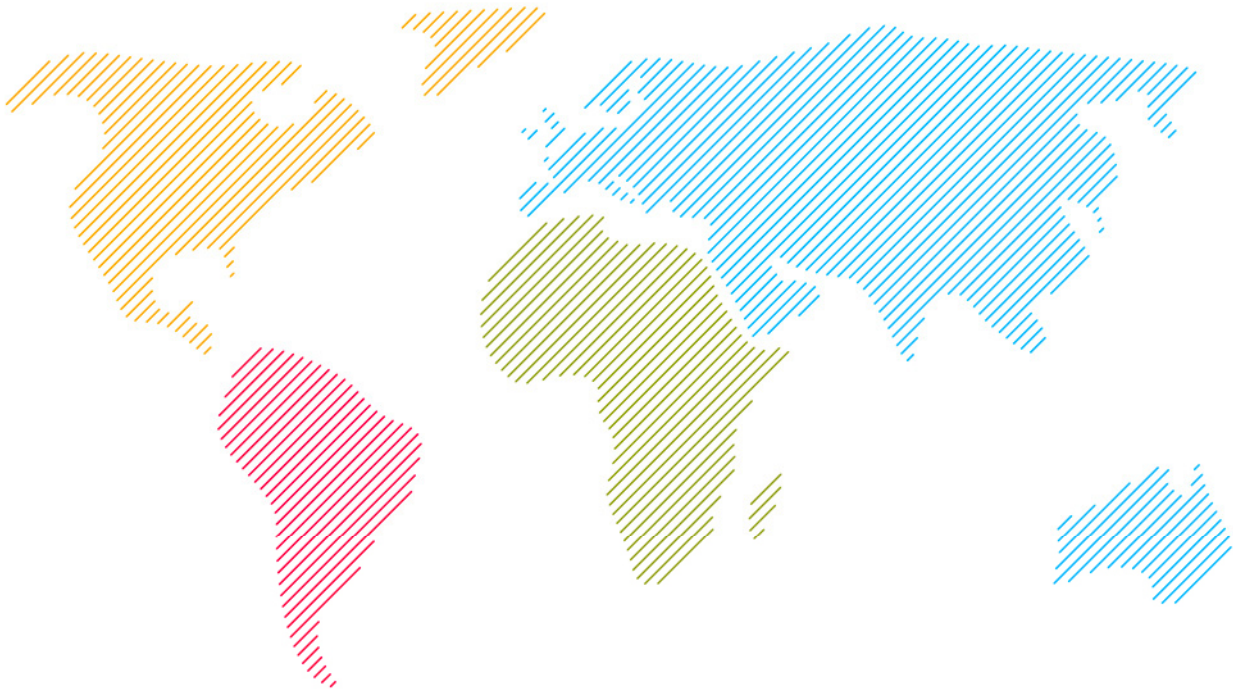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044-414-1052)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요약

-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현재 이행 5년 차 스케줄을 이행 중에 있으며, 한·중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실질적·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한·중 FTA 상품양허를 통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한국)와 85%(중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나타나는 품목의 비중은 이보다 작으며, 이들 품목이 양국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15년 평균 한국 51.1%, 중국 48.1%에 불과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간 무역의 추세적 상승과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양국간 교역 증가가 집중된 반면, 그간 두 국가간 교역을 이끌어온 기계 산업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함.
 - 관세청이 추산한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세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통한 한·중 FTA 교역효과 추정 결과,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
- ▶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발생한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 한·중 FTA의 가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포괄적 경제협력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0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한·중 FTA의 배타적 혜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관계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차 례

1. 서론

2. 한·중 상품무역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변화

3. 한·중 FTA에 따른 수출입 변화

가. 한·중 FTA 특혜품목의 교역

나. 한·중 FTA 활용률

다. 한·중 FTA 수출입 효과 추정

4. 결론

부록: 주요 세부품목(HS 4단위)의 한·중 교역과 관세감축 현황

참고문헌

1. 서론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하여 현재 4년이 경과했으며, 2019년 이행 5년 차 스케줄을 이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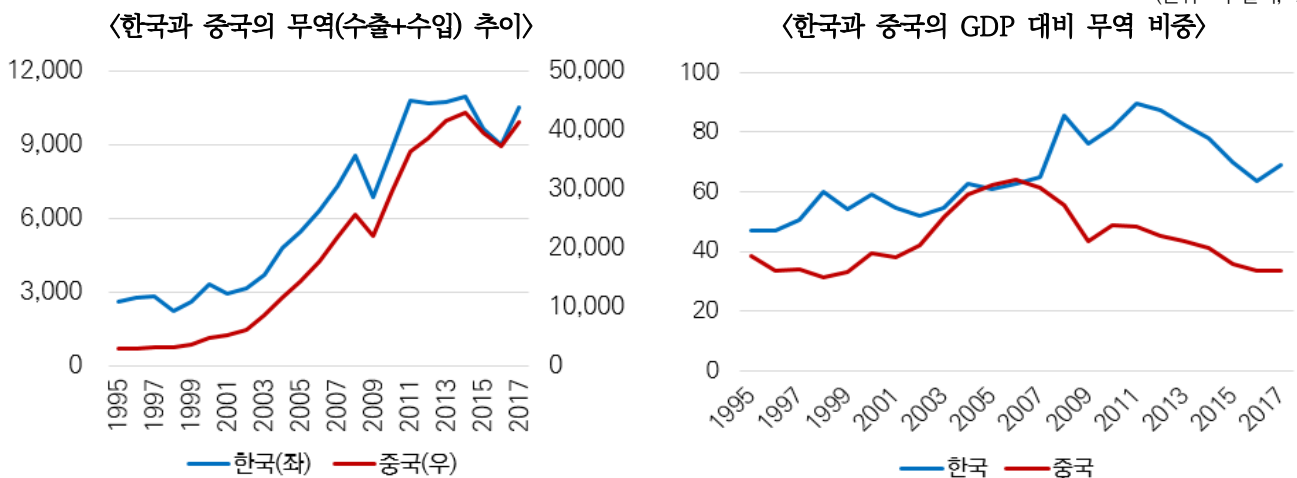
- 한·중 FTA는 2005년 중국의 국무원발전중심(DRC)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간 공동연구, 2007~10년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2012~14년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타결됨.
- 한국은 2015년 6월 1일 협정문 정식 서명, 2015년 11월 30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12월 20일 공식 발효를 통해 2015년 이행 1년 차, 2016년 이행 2년 차로 이행 스케줄을 빠르게 진척시킴.

■ 한·중 FTA는 ①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②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 ③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④ 양국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 ⑤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등에 의의를 두고 있음.¹⁾

-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문화·정치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핵심적인 교역국이자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음.
-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양국 경제는 단순한 산업간 분업관계를 넘어 차원 높은 협력적 상생 관계를 요구함.
- 특히 오늘날 한·중 FTA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 속에서 양국 무역을 떠받치는 핵심요소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
- 세계무역 성장세의 둔화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무역증가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어 GDP 대비 무역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함.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무역성장세 둔화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cn/info/1/>.

■ 본고는 한·중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실질적·상징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중 FTA의 효과를 FTA 발효 이후 양국간 상품무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한·중 FTA 발효 전 3년(2013~15년)과 발효 후 3년(2016~18년) 기간의 양국간 상품무역의 변화를 비교·분석함.
- 상품양허에 따른 실질적 관세감축, FTA 활용 현황, FTA 전후 산업별·주요품목별 무역 변화를 분석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한·중 FTA의 수출 및 수입 효과를 추정함.

2. 한·중 상품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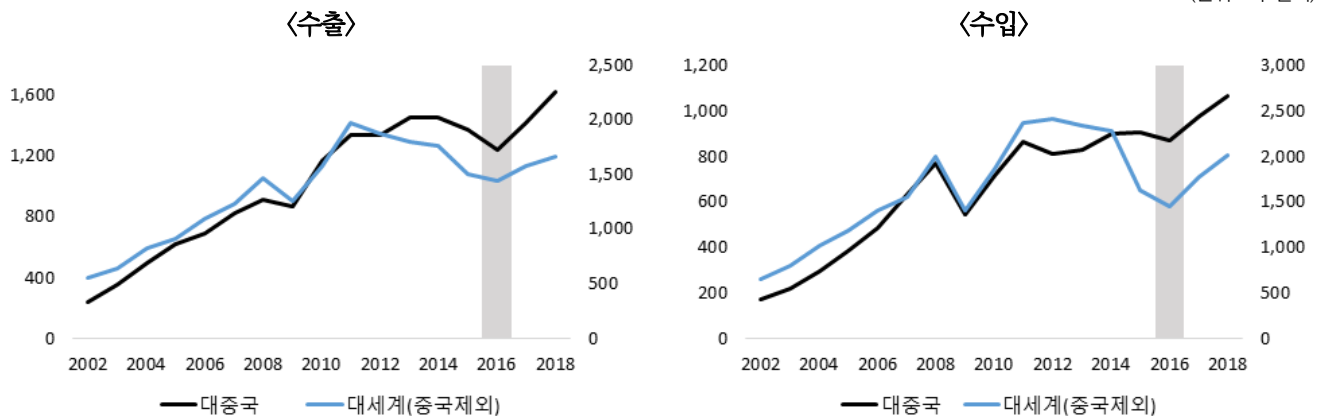
가. 일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상품무역으로 본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더욱 강화됨.

- 2000년대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0년까지는 대세계 교역 추이와 유사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대세계 교역과 다른 움직임을 보임.
- 2011~14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반면 수입의 경우 2014~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급감한 것과 달리 대중국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감.
- 2016년은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임에 불구하고, 세계적인 교역 둔화²⁾와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 경색의 여파로 오히려 교역이 감소함.

그림 2.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왼쪽 축은 대중국 교역액, 오른쪽 축은 대세계(중국 제외) 교역액, 음영은 한·중 FTA 발효 시점의 기준연도(2016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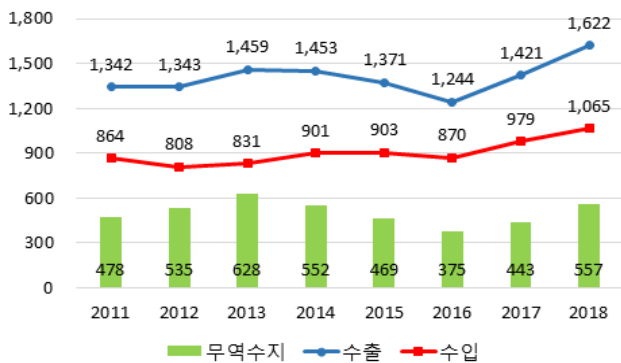
2) 2016년 전 세계 상품교역액(수출 기준)은 전후 다른 연도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IMF(2019), p. 161.

- 전 세계 상품교역액(조 달러): ('13) 18.5, ('14) 18.6, ('15) 16.2, ('16) 15.7, ('17) 17.4, ('18) 19.1.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4.2%에서 2018년 26.8%로 확대되었고, 수입 역시 중국의 비중이 2011년 16.5%에서 2018년 19.9%로 확대됨.
- 2018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697억 달러에 이른 가운데 대중국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를 기록함.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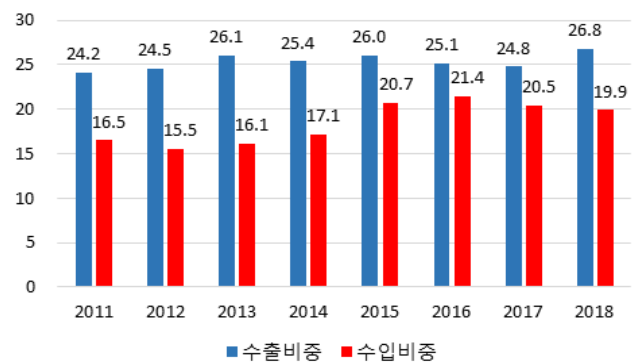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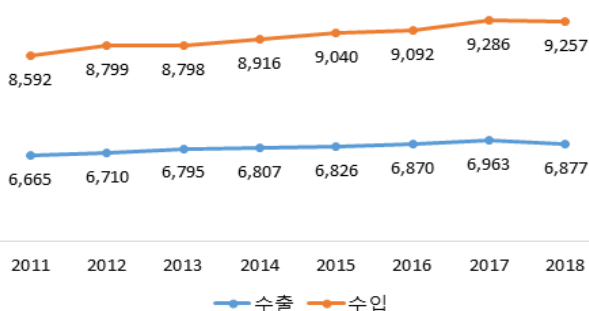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품목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교역액뿐 아니라 교역품목의 다양성 역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HS 10단위 기준 수출과 수입 품목수는 2011년 각각 6,665개와 8,592개에서 2018년 6,877개와 9,257개로 늘어남.
- 특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8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고, 2018년에는 그 비중이 82.9%까지 높아짐.
- 반면 수출에서는 대세계 품목수 대비 대중국 품목수 비중이 70%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교역품목의 상대적 다양화가 대중국 수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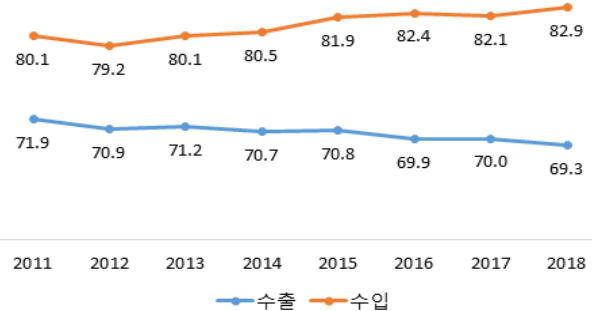
(단위: 개, %)

〈HS 10단위 대중 교역품목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대세계 교역품목수 대비〉



나.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변화³⁾

■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한·중 FTA 발효 전 3년과 비교하여 발효 후 평균적으로 각각 0.1%와 10.6% 증가했으나,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0.2%p 감소, 총수입에서 비중은 2.7%p 증가함.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중 FTA 발효 전후 평균 0.1%, 대세계 수출은 1.2% 증가하여, 한국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25.8%에서 발효 후 25.6%로 소폭 감소함.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수입은 평균 7.1% 감소하여 한국 총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한·중 FTA 발효 전 17.8%에서 발효 후 20.5%로 크게 높아짐.

표 1.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대중국	대세계(중국 제외)	중국의 비중	대중국	대세계(중국 제외)	중국의 비중
FTA 발효 전 (2013~15) 연평균	142,760	410,257	25.8%	87,795	404,738	17.8%
FTA 발효 후 (2016~18) 연평균	142,904	415,193	25.6%	97,106	376,175	20.5%
증감 (증감률)	143 (0.1%)	4,936 (1.2%)	-0.2%p	9,311 (10.6%)	-28,563 (-7.1%)	2.7%p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중국해관통계 자료로 볼 때, 양국간 수출입 금액은 다소 차이를 보이나, 한·중 FTA 발효 전후 양국 교역의 추이와 특징은 한국 통계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은 두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2% 증가한 반면 대세계 수출은 정체되면서 중국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0.2%p 높아졌고,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비중) 상승으로 이어짐.
- 수입의 경우 한·중 FTA 발효 전후 3년간 평균적으로 1.3% 감소했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0.3%p 낮아졌는데, 이 기간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역시 줄어들음.

표 2. 한·중 FTA 발효 전후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대한민국	대세계(한국 제외)	한국의 비중	대한민국	대세계(한국 제외)	한국의 비중
FTA 전 (2013~15) 연평균	97,582	2,174,924	4.3%	182,410	1,590,315	10.3%
FTA 후 (2016~18) 연평균	101,652	2,175,874	4.5%	180,046	1,622,131	10.0%
증감 (증감률)	4,070 (4.2%)	951 (0.0%p)	0.2%p	-2,364 (-1.3%)	31,816 (2.0%)	-0.3%p

자료: 중국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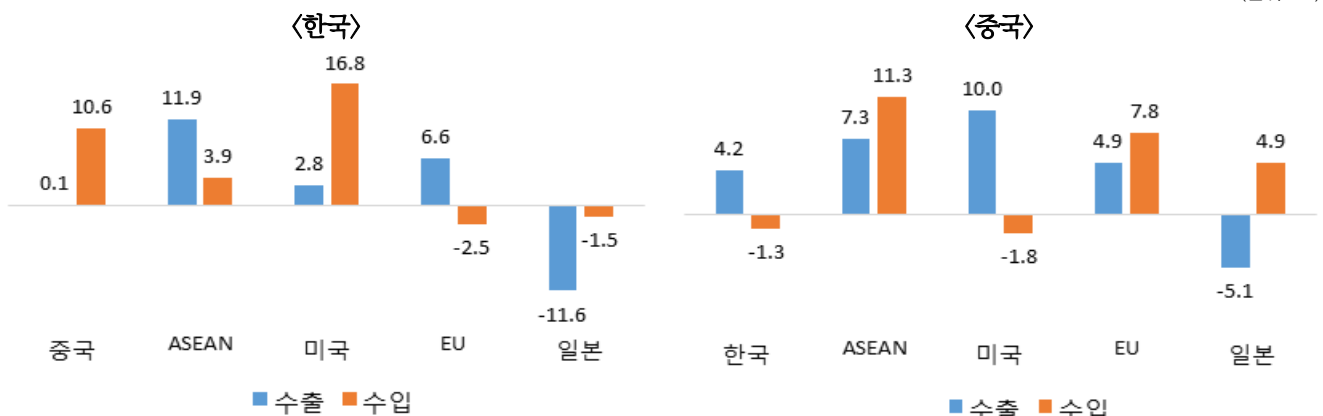
3)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변화는 2013~15년을 발효 전, 2016~18년을 발효 후로 정의하고, 두 기간에 발생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평균치를 비교함.

■ 한·중 FTA 발효 전후 3년간 양국의 평균 수출입 증가율을 다른 주요 4개국(아세안, 미국, EU, 일본)과 비교할 때, 한·중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수입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 한·중 FTA 발효 후 3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0.1%에 그쳐 같은 기간 수출이 크게 감소한 일본(-11.6%)보다는 컸으나, 아세안(11.9%), 미국(2.8%), EU(6.6%)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중국 해관통계로 본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최근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함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다른 주요국에 대한 수입증가세와 대조됨.
-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10.6%로 늘어 미국(16.8%)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중국 해관통계로 본 중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은 한·중 FTA 발효 후 미국(10.0%), 아세안(7.3%), EU(4.9%)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평균 4.2%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함.

그림 6. 한·중 FTA 발효 전후 양국의 주요 경제권간 수출입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중국해관통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의 반도체 편중현상 심화가 두드러진 반면 기계와 수송기기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입의 경우 철강·비철금속, 기계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FTA 발효 전보다 증가함.⁴⁾

-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56.3%), 농축수산물업(10.3%), 광업(36.1%), 화학·고무·플라스틱(5.8%), 전자(반도체 외)(9.7%) 산업이며, 특히 마지막 3개 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이 감소한 것과 대비됨.

4) 산업분류는 HS 6단위 기반의 GTAP 산업분류를 준용하여 총 8개 산업으로 구분하되(HS 제99류 등 미분류 항목 제외), 추가적으로 전자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MTI코드 '831'에 해당하는 HS 6단위)와 '기타 전자(반도체 외)'를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8개 산업분류		세부 산업분류 (GTAP 산업분류 코드)
1	농축수산물업	쌀(1, 23); 곡물·과일·채소(3, 4, 5, 8); 육류·낙농(11, 19, 20, 22); 가공식품(21, 25, 26); 기타농업(2, 6, 7, 9, 10, 12, 24); 수산업(14)
2	광업	채취업(13, 15, 16, 17, 18)
3	섬유·의복·기타제조업	섬유·직물(27); 의복(28); 기타제조업(29, 30, 31, 34, 42)
4	화학·고무·플라스틱	화학·고무·플라스틱(32, 33)
5	철강·비철금속	철강(35, 37); 비철금속(36)
6	수송기기	자동차(38); 기타수송기기(39)
7	전자	전자(40)
8	기계	기계(41)

- 반면 수송기기(-51.9%)와 기계(-21.8%) 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대세계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세 약화를 주도함.
-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57.5%)와 화학·고무·플라스틱(29.1%)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고, 철강·비철금속(-7.7%), 기계(-4.6%)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대세계 수입과 비교할 때 대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함.

표 3.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수출					수입				
	2013~15 연평균	2016~18 연평균	증감액	증감률	증감률 (대세계)	2013~15 연평균	2016~18 연평균	증감액	증감률	증감률 (대세계)
농축수산물업	1,124	1,240	116	10.3	12.1	3,764	3,789	25	0.7	7.8
광업	184	250	66	36.1	-4.3	703	741	37	5.3	-22.9
섬유·의복·기타제조업	4,584	4,095	-489	-10.7	-4.6	15,153	15,787	634	4.2	15.0
화학·고무·플라스틱	35,262	37,289	2,028	5.8	-4.5	9,462	12,215	2,753	29.1	-14.2
철강·비철금속	8,017	7,958	-59	-0.7	0.6	13,501	12,466	-1,035	-7.7	-14.8
수송기기	8,535	4,106	-4,429	-51.9	-10.2	2,199	2,363	163	7.4	13.5
전자(반도체 외)	7,639	8,380	741	9.7	-14.7	11,113	14,093	2,980	26.8	28.1
반도체	24,495	38,291	13,796	56.3	67.4	8,263	13,015	4,752	57.5	4.9
기계	52,772	41,278	-11,494	-21.8	3.2	23,604	22,516	-1,087	-4.6	11.7
전체	142,760	142,904	143	0.1	1.2	87,795	97,106	9,311	10.6	-7.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한·중 FTA에 따른 수출입 변화

가. 한·중 FTA 특혜품목의 교역

- 한·중 FTA 상품양허를 통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한국)와 85%(중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나타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 76.8%, 중국 83.8%이며, 이 품목들이 양국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15년 기준 한국 51.1%, 중국 48.1%에 불과함.
- 상품양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허 유형은 장기철폐(이행 10·15·20년 차 철폐)로 양국의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33.1%, 중국 33.5%이며, 이 가운데 이행 10년 차 철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즉시 또는 이행 5년 차(2019년 1월 1일) 철폐(단기철폐) 품목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 45.4%, 중국 32.2%에 달하나, 실제 양국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3.8%, 중국 6.5%로 낮은 수준임.
- 관세양허가 해당 유형의 기간에 걸쳐 균등 감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18년 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세인하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표 4. 한·중 FTA 상품양허 결과

(단위: 개, %, 백만 달러)

구분	양허 유형	한국				중국			
		품목수	비중	대중국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대한민국 수입액	비중
미감축	협정배제	16	0.1	216	0.2	-	-	-	-
	양허제외	836	6.8	4,640	5.3	637	7.8	14,650	8.0
	무관세*	1,983	16.2	38,056	43.3	691	8.4	80,106	43.9
	소계	2,835	23.2	42,912	48.9	1,328	16.2	94,756	51.9
단기철폐	즉시철폐	4,125	33.7	8,644	9.8	958	11.7	7,027	3.9
	5년 철폐	1,433	11.7	3,506	4.0	1,679	20.5	4,796	2.6
	소계	5,558	45.4	12,150	13.8	2,637	32.2	11,823	6.5
장기철폐	10년 철폐	2,149	17.6	18,730	21.3	2,518	30.7	30,473	16.7
	15년 철폐	1,106	9.0	7,985	9.1	1,108	13.5	21,188	11.6
	20년 철폐	476	3.9	2,304	2.6	474	5.8	9,479	5.2
	소계	3,731	30.5	29,020	33.1	4,100	50.0	61,141	33.5
기타	부분감축	87	0.7	2,510	2.9	129	1.6	9,766	5.4
	TRQ	21	0.2	553	0.6	-	-	-	-
	소계	108	0.9	3,064	3.5	129	1.6	9,766	5.4
HS 불일치**				651	0.7	-	-	4,925	2.7
합계		12,232	100.0	87,795	100.0	8,194	100.0	182,410	100.0

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3년(2013~15년) 평균.

* 양허 유형상 '즉시철폐'이나 기준세율이 0%로 사실상 관세감축이 일어나지 않는 품목.

** 분석기간 동안 한·중 FTA 협정문에 제시된 HS 코드 이외의 것으로 수입이 일어난 경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국해관통계,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p.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중 FTA 상품양허에 영향을 받는 특혜품목⁵⁾에 대한 양국간 수입은 비특혜품목 수입과 비교할 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관세감축에 따른 양국간 무역 확대는 그다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⁶⁾

- 한·중 FTA 발효 전후 3년간 양국 수입에서 특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FTA 발효 전 60.6%에서 발효 후 57.6%로 3.0%p 감소, 중국은 55.1%에서 46.7%로 8.4%p 감소함.
-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국 특혜품목 수입은 5.2% 증가에 그친 반면, 비특혜품목 수입은 오히려 19.0% 증가함.
-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민국 특혜품목 수입은 16.3% 감소하고, 비특혜품목에 대한 수입은 17.1% 증가하여 더욱 극명한 대조를 보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농축수산물식품업, 철강·비철금속,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은 농축수산물식품업, 광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전자(반도체 외) 산업에서 특혜품목의 비중이 증가함.
-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한·중 FTA 발효 후에도 특혜품목의 수입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관측되었고, 양국간 교역증가를 이끈 반도체는 대부분 무관세로 거래됨으로써 비특혜품목에 포함됨.

5) 여기서 특혜품목은 각각의 세번(tariff line)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HS 6단위를 기준으로 그 하부에 속하는 세번들 가운데 한·중 FTA 상품양허에 따른 관세감축이 1개 이상 발생한 품목을 의미함. 또한 FTA 이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6) 주요 세부품목별(HS 4단위) 한·중 간 교역 변화와 관세감축 현황은 부록 참고.

표 5. 한·중 FTA 특혜품목의 수입 현황

(단위: 개, 억 달러, %)

구분		품목수	2013~15 평균	2016~18 평균	증감률
한국 수입	특혜 (비중)	4,140 (79.5)	532 (60.6)	560 (57.6)	5.2
	비특혜 (비중)	1,065 (20.5)	346 (39.4)	411 (42.4)	19.0
중국 수입	특혜 (비중)	4,539 (87.2)	1,005 (55.1)	841 (46.7)	-16.3
	비특혜 (비중)	666 (12.8)	819 (44.9)	959 (53.3)	17.1

자료: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6. 한·중 FTA 특혜품목의 산업별 수입 비중

(단위: %)

산업	한국 수입		중국 수입	
	2013~15	2016~18	2013~15	2016~18
농축수산물식품업	80.7	83.4	67.2	68.7
광업	44.7	45.0	63.2	79.2
섬유·의복·기타 제조업	79.1	74.6	92.2	87.2
화학·고무·플라스틱	94.7	91.8	78.4	78.8
철강·비철금속	30.1	37.1	77.4	78.4
수송기기	77.6	77.0	99.3	99.5
전자(반도체 외)	21.7	20.9	37.1	41.7
반도체	0.5	0.4	0	0
기계	87.5	88.5	78.0	73.1

자료: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한·중 FTA 활용률

■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한·중 FTA 수출활용률과 수입활용률은 각각 55.0%와 74.9%로 2016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나, 한국이 체결한 15개 FTA의 활용률이 수출 73.5%, 수입 75.3%임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음.⁷⁾

- 특히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나 한·중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절반 이상이 관세 혜택 없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조사됨.
- FTA 활용률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전체 무역액 중에서 실제 원산지를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의 거래액 비중으로, 배타적인 관세감축에서 발생하는 양국간 교역의 증가, 즉 FTA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임.

■ 2018년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이 한국 15개 FTA의 산업 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상품 뿐이며, 수입활용률의 경우 8개 제조업 중 5개 산업에서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 수출활용률의 경우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에서 한·중 FTA 평균 수출활용률(55.0%)보다 높았을 뿐 나머지 산업은 평균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화학공업제품(60.1%)과 플라스틱·고무·가죽(57.7%)의 활용률은 한국 15개 FTA에서 이들 산업의 평균 수출활용률인 67.8%와 67.1%에도 미치지 못함.
- 수입활용률에서는 화학공업제품(86.7%), 플라스틱·고무·가죽(78.1%), 전자전기제품(70.2%)의 활용률이 한국 15개 FTA에서 이들 산업의 평균 수입활용률인 82.1%, 77.5%, 64.3%보다 높게 나타남.

7) 2019년 11월 기준 한국은 총 16개 FTA를 발효함. 그러나 한·중 FTA 활용률 분석을 위해 2019년 10월 1일 발효한 한·중미 FTA를 제외한 15개 FTA만을 비교대상으로 고려함.

표 7. 한·중 FTA 수출 및 수입 활용률

(단위: %)

산업	수출 활용률				수입 활용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15개 FTA)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15개 FTA)
농림수산물	34.6	51.6	73.8	57.5	54.4	68.5	74.3	90.4
광산물	53.2	59.7	90.7	88.2	40.8	53.1	57.0	65.8
화학공업제품	49.1	58.2	60.1	67.8	73.8	82.9	86.7	82.1
플라스틱·고무·가죽	26.2	53.1	57.7	67.1	59.9	73.0	78.1	77.5
섬유류	21.6	37.3	43.3	50.7	60.0	71.6	75.8	85.1
생활용품	17.4	40.0	44.3	52.7	51.9	63.3	69.2	69.6
철강·금속제품	31.4	46.3	51.8	64.8	64.1	69.0	72.9	79.0
기계류	27.9	46.3	53.1	84.2	49.9	60.6	68.9	74.6
전자전기제품	15.0	42.9	37.9	63.2	50.2	60.6	70.2	64.3
기타	9.0	17.7	19.3	60.8	40.8	62.6	64.0	88.5
계	33.9	49.7	55.0	73.5	58.1	68.6	74.9	75.3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다. 한·중 FTA 수출입 효과 추정

1) 추정 방법

■ 한·중 FTA 교역효과 측정은 중력모형⁸⁾에 따라 한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종속변수, 한국과 무역상대국의 GDP 및 한·중 FTA를 비롯한 개별 FTA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실증분석을 실시함.

- 한·중 FTA 더미변수는 t 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한 상태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데, 이를 포함한 중력모형의 회귀분석으로부터 추정된 한·중 FTA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한·중 FTA 교역효과를 나타냄.
 - 설명변수에는 2016~17년 양국간 정치·외교 관계 악화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가 추가되고, 그 밖에 국가별·연도별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더미와 연도더미 등이 포함됨.
 - 한·중 FTA 교역효과는 앞서 각주 4)에서 자세히 설명한 8개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별로 제시함.
- 분석 기간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며, 분석에 필요한 수출입, GDP, FTA 자료 등은 UN Comtrade, World Bank, WTO 등으로부터 추출함.

■ 한·중 FTA 교역효과는 분석 대상을 각각 ① 전체 품목과 ②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① 양국간 FTA 체결이 특정 품목의 교역에서 관세 인하 및 철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양국간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함.

8) 중력모형은 Jan Tinbergen(1962)에 의해 최초 도입된 모형으로, 국제무역의 흐름을 자국과 상대국의 GDP, 두 국가간 물리적 거리로 설명함. 중력모형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면서 FTA 효과를 측정하는 실증분석 모형으로 확장됨. 여기서는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가 제안한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기법을 사용하여 중력모형을 추정함.

- 한·중 FTA 특혜품목은 물론 비특혜품목을 포함한 모든 품목을 중력모형 추정자료에 포함함.
- ② FTA에 따른 양국간 교역증대 효과가 일차적으로 협정문상 관세감축과 철폐에 따른 직접적인 시장접근 개선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으로 한정함.
- 기준세율이 0%인 품목, 분석 기간(2016~18년) 동안 관세감축이 일어나지 않는 품목 등은 분석자료에서 제외함.

2) 추정 결과

■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대중국 수출보다 수입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수출효과가 나타난 산업은 농축수산물식품업, 광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이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의 경우 FTA 발효 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 외에 대중국 수출규모가 큰 수송기기와 기계 산업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FTA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한·중 FTA의 수입효과는 화학·고무·플라스틱과 전자 산업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산업에서는 한·중 FTA가 대중국 수입증가에 기여했다는 통계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표 8. 한·중 FTA 전체 수출입 효과(2013~15년과 2016~18년 평균 증감률 비교)

(단위: %)

산업	수출			수입		
	총 증감률	FTA 효과	FTA 효과의 비중	총 증감률	FTA 효과	FTA 효과의 비중
농축수산물식품업	10.3	5.4	51.9	0.7	-	-
광업	36.1	23.7	65.8	5.3	-	-
섬유·의복·기타 제조업	-10.7	-	-	4.2	-	-
화학·고무·플라스틱	5.8	3.6	61.9	29.1	7.3	25.1
철강·비철금속	-0.7	-	-	-7.7	-	-
수송기기	-51.9	-	-	7.4	-	-
전자	45.2	-	-	39.9	16.3	40.9
기계	-21.8	-	-	-4.6	-	-

주: '총 증감률'은 앞선 [표 3]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중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발효 후 3년 평균 금액의 변화율(증감률), 'FTA 효과'는 한·중 FTA에 따른 증감율, 'FTA 효과의 비중'은 '총 증감률'에서 'FTA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 특혜품목만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중 FTA 효과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크고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6개 제조업 중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전자 산업에서 수출과 수입 증가효과가 나타남.

- 수출효과와 수입효과 모두 광업에서의 효과는 사라진 반면, 농축수산물식품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서는 더욱 강화되었고, 철강·비철금속, 전자 산업에서도 FTA 효과가 관측됨.
- 특히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수출효과가 평균 5.3%로 한·중 FTA가 이 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전자 산업에서는 비특혜품목인 반도체(기존 무관세)가 제외되면서 수출효과가 관찰되고 있음.

- 수입효과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품목에 대한 효과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한·중 FTA에 따라 농축수산물에서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2.8%의 수입증가가 발생했고, 화학·고무·플라스틱과 전자 산업은 물론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도 유의미한 수입증가가 관측됨.

표 9. 한·중 FTA 특혜품목 수출입 효과(2013~15년과 2016~18년 평균 증감률 비교)

(단위: %)

산업	수출			수입		
	총 증감률	FTA 효과	FTA 효과의 비중	총 증감률	FTA 효과	FTA 효과의 비중
농축수산업	13.7	9.0	65.5	4.0	2.8	70.7
광업	-1.6	-	-	6.1	-	-
섬유·의복·기타제조업	-10.7	-	-	-1.7	-	-
화학·고무·플라스틱	9.6	8.2	86.1	25.1	8.6	34.0
철강·비철금속	6.0	5.3	88.9	13.8	9.8	70.4
수송기기	-50.1	-	-	6.6	-	-
전자	53.0	10.8	20.4	22.5	12.1	53.6
기계	-21.9	-	-	-3.6	-	-

주: '총 증감률'은 앞선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특혜품목에 대해서만 계산한 한·중 FTA 발효 전 3년 평균 대비 발효 후 3년 평균 금액의 변화율(증감률), 'FTA 효과'는 한·중 FTA에 따른 증감률, 'FTA 효과의 비중'은 '총 증감률'에서 'FTA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4. 결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으나,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간 무역의 추세적 상승과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

-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2013~15년과 2016~18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한·중 교역을 살펴본 결과,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남.
 - 산업별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양국간 교역 증가가 집중된 반면, 그간 두 국가간 교역을 이끌어온 기계 산업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함.
- 한·중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이 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초 무관세이던 반도체 교역 급증으로 FTA 발효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 산업 등에서는 특혜품목의 교역비중이 증가함.
- 관세청이 추산한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양국간 배타적 관세감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세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통한 한·중 FTA 교역효과 추정 결과,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모두 특혜품목에서 FTA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발생한 양국간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이 한·중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전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

■ 한·중 FTA의 가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양국간 배타적 개방 수준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포괄적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0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한·중 FTA의 배타적 혜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관계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KIEP

부록. 주요 세부품목(HS 4단위)의 한·중 교역과 관세감축 현황

■ [수출]⁹⁾ 한·중 FTA 발효 후(2016~18년) 품목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을 살펴보면 HS - 8542(전자직접회로, 이하 반도체)가 전체 수입의 3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상위 30개 주요 품목에는 기계,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속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함.

-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FTA 발효 전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13개(감소 17개), 시장점유율(수입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14개(감소 16개)이며, 대체적으로 금액 및 비중의 변화가 동일한 방향성을 보임.
- 수입액과 시장점유율 변화의 방향이 반대를 보이는 품목은 HS - 8486(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금액↑, 비중↓), HS - 2710(석유조제품) 및 HS - 7210(판(폭 60cm 이상, 도금)(금액↓, 비중↑) 3개임.

■ FTA 발효 전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들은 수입증가율 역시 높은 편이며, 반대로 수입이 감소한 품목들의 경우 중국 내 시장점유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HS - 8542(반도체)(153억 달러)이며, 크게 감소한 품목은 HS - 9013(액정디바이스·기타광학기기)(-66억 달러)와 HS - 8517(통신기기)(-36억 달러)임.
- 품목별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HS - 7003(주입법·롤법으로 제조한 유리)이 9.0%→49.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HS - 8517(통신기기)은 20.0%→12.0%로 가장 크게 감소함.

■ 상위 30개 주요 품목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한 중국의 관세감축은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의 품목에서 많이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수입액 및 시장점유율 증가로의 연결성은 다소 약함.

- 주요 품목 중 FTA 발효 전후로 △관세감축(1% 이상) △수입액 증가 △시장점유율 증가 3가지 모두 나타난 품목은 HS - 2902(환식탄화수소), HS - 3304(화장품) 등 10개임.
- 관세감축(1% 이상)에도 불구하고 수입액과 시장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품목 역시 12개에 달함.
- 반면 관세감축이 0% 또는 1% 미만인 경우는 HS - 8542(반도체), HS-8473(자동차 부분품) 등 6개로, 이들은 대부분 수입액 규모가 큰 품목들임.

9)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내용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변화와 관세감축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봄.

부표 1.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 및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4	품목명	관세 감축 (%)	수입액		시장점유율(수입비중)		주요 산업
				2016~18 평균금액	FTA 전후 증감률(%)	2016~18 비중(%)	FTA 전후 증감(%)	
1	8542	전자집적회로	0	66,833	29.7	25.0	2.3	반도체
2	9013	액정디바이스와 기타광학기기	1.1	11,133	-37.4	30.6	-4.5	기계
3	2902	환식탄화수소	9.0	7,820	7.3	39.0	3.8	화학
4	8517	통신기기	2.1	5,680	-38.7	12.0	-8.0	기계
5	2710	석유조제품	68.4	4,754	-24.2	31.2	4.1	화학
6	8486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4.1	4,190	81.6	19.5	-2.1	기계
7	8708	[자동차] 부분품(8701-8705)	12.1	3,139	-15.5	11.5	-3.4	수송
8	8473	[컴퓨터 등] 부분품(8469-8472)	0.1	2,821	8.9	18.1	3.8	반도체
9	8529	[송수신기] 부분품(8525-8528)	27.8	2,449	77.3	21.7	3.7	전자
10	2707	고온콜타르의 증류물	27.0	2,383	159.1	25.3	9.2	화학
11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0	2,376	-22.5	8.4	-1.8	반도체
12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0	2,351	-19.3	8.5	-1.9	전자
13	2901	비환식탄화수소	40.3	2,333	-13.0	39.5	-4.5	화학
14	3901	에틸렌	6.1	1,985	-3.1	11.5	-1.7	화학
15	9001	광섬유·렌즈	39.3	1,913	7.8	26.6	3.7	기계
16	8534	인쇄회로	0	1,886	-32.7	16.5	-4.9	전자
17	8479	기타의 기계류	6.3	1,815	41.1	15.5	1.8	기계
18	3304	화장품	15.1	1,756	399.8	26.6	10.6	화학
19	3902	프로필렌	5.4	1,540	-20.5	24.0	-0.3	화학
20	3907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28.2	1,510	4.4	17.4	0.4	화학
21	3920	보강하지 않은 판·쉬트	32.8	1,498	-5.1	22.0	-0.2	화학
22	3903	스티렌	19.9	1,468	-8.9	25.4	-2.0	화학
23	9031	기타의 측정·검사용 기기	18.4	1,302	43.2	11.4	0.6	기계
24	8536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 기기(1000V 이하)	4.4	1,274	-13.1	8.4	-1.6	기계
25	7210	판(폭 60cm 이상, 도금)	0.3	1,126	-13.9	48.7	3.0	철강
26	7003	주입법·롤법으로 제조한 유리	40.0	1,069	939.1	49.7	40.7	기타제조
27	8507	축전지	16.5	1,018	-19.5	23.6	-6.1	기계
28	2804	비금속원소	29.4	1,005	45.9	38.4	7.8	화학
29	2713	석유·역청유의 잔재물	27.0	1,002	-28.3	40.7	-8.1	화학
30	3824	기타 화학공업생산물	27.2	954	-15.5	15.6	-1.9	화학
		전체		180,046	-1.3	10.0	-0.3	

주: 관세감축률은 해당 HS 4단위 품목의 하부품목별(HS 8단위) 2013~15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을 가중치로 두고, 한·중 FTA 이행 4년 차(2018년) 관세감축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중국해관통계.

■ [수입] 한·중 FTA 발효 후(2016~18년)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HS-8542(반도체), HS-8517(통신기기), HS-8471(자동자료처리기계; 이하 컴퓨터) 등이며, 이 외에도 상위 30개 품목에 기계, 전자, 철강, 섬유·의복·기타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의 품목이 고르게 포함됨.

-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FTA 발효 전후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20개(감소 10개), 시장점유율(수입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15개이나, 금액과 비중 변화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다수 관찰됨.
- 다만 수입액 증가와 시장점유율 감소를 함께 보인 6개 품목들의 경우 증감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나, 반대로 수입액이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HS-7308(철강제 구조물)은 각각 29.2% 감소, 14.6%p 증가로 크게 변화함.

■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품목들은 대체로 수입액과 시장점유율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이 줄어든 품목들은 수입액과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함.

-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HS-8542(반도체)(42억 달러)와 HS-8471(컴퓨터)(17억 달러) 등이며, 반대로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HS-7208(판(폭 60cm 이상, 열간압연))(-7.8억 달러)임.
-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HS-8507(축전지)로 FTA 발효 전 54.8%에서 발효 후 76.5%로 21.7%p 증가함.

■ 상위 30개 주요 품목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한 한국의 관세감축은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품목들에서 나타났으나,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을 비롯한 많은 품목들이 FTA 이전부터 무관세 대상에 속함.

- 주요 품목 중 FTA 발효 전후로 △관세감축(1% 이상) △수입액 증가 △시장점유율 증가 3가지 모두 나타나는 품목은 HS-8473(반도체 부분품), HS-9401(의자) 등 9개임.
- 관세감축(1% 이상)이 되었음에도 수입액과 시장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품목은 6개이며, 반대로 관세감축이 0% 또는 1% 미만인 품목 역시 10개에 달함.
- 관세감축률이 80% 이상에 달하는 HS-7326(철강제 기타 제품), HS-8507(축전지), HS-8516(가정용 전열기기) 등의 경우 FTA 전후 수입액과 시장점유율이 모두 증가함.
- 특히 위 3개 품목의 경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다른 주요 품목과 비교해 관세감축률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임.

부표 2. 한국의 대중국 수입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 및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4	품목명	관세 감축 (%)	수입액		시장점유율(수입비중)		주요 산업
				2016~18 평균금액	FTA 전후 증감률(%)	2016~18 비중(%)	FTA 전후 증감(%)	
1	8542	전자집적회로	0	10,244	68.7	31.4	11.0	반도체
2	8517	통신기기	0	6,540	2.0	52.6	-18.0	기계/전자
3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0	4,920	53.8	69.0	4.7	전자
4	8544	절연전선·케이블	38.8	2,279	8.7	77.8	-1.4	기계
5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0	1,821	-7.7	40.3	-1.4	반도체
6	9013	액정디바이스와 기타광학기기	6.5	1,812	-6.9	49.9	-11.6	기계
7	8473	부분품(8469-8472)	1.4	1,684	81.7	47.7	3.7	반도체
8	7210	판(폭 60cm 이상, 도금)	0	1,104	26.8	84.3	15.2	철강
9	8708	[자동차] 부분품(8701-8705)	27.5	1,103	-1.7	28.0	-3.8	수송
10	7308	[철강제] 구조물	1.3	1,022	-29.2	85.5	14.6	철강
11	7208	판(폭 60cm 이상, 열간압연)	0	1,016	-43.4	36.3	-7.9	철강
12	8504	변압기·정지형변환기	23.7	1,014	-15.2	43.7	-5.6	기계
13	7219	스테인레스강 판(폭 60cm 이상)	0	992	5.3	60.5	6.9	철강
14	8528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	5.8	980	-1.2	62.0	-10.7	전자
15	8534	인쇄회로	0	903	-28.4	39.8	-8.8	전자
16	9401	의자	10.3	833	19.7	69.9	0.8	기타제조
17	8507	축전지	89.9	803	95.9	76.5	21.7	기계
18	4202	케이스·가방	35.4	798	1.7	35.8	-4.9	기타제조
19	8536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기기(1000V 이하)	13.9	777	-17.9	34.5	-6.1	기계
20	6802	비석·건축용의 석재	33.7	770	13.0	90.5	-1.1	기타제조
21	8414	기체펌프·팬·후드	60.5	759	29.1	30.5	5.9	기계
22	8501	전동기와 발전기	30.8	751	43.2	38.3	7.4	기계
23	7225	기타 합금강 판(폭 60cm 이상)	0	732	13.4	75.4	-0.1	철강
24	3818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	698	142.3	35.8	13.7	화학
25	8529	[송수신기] 부분품(8525-8528)	57.2	696	157.5	42.4	13.5	전자
26	8443	인쇄기·복사기	3.0	666	-17.0	48.6	-4.8	전자
27	6204	여성용 슈트·바지	10.6	618	9.4	54.7	-3.3	기타제조
28	9503	완구	26.8	613	42.6	76.2	9.1	기타제조
29	8516	가정용 전열기기	82.0	611	49.7	64.0	1.8	기계
30	7326	[철강제] 기타 제품	100	601	23.7	32.7	9.2	철강
		전체		97,106	10.6	20.5	2.7	

주: 관세감축률은 해당 HS 4단위 품목의 하부품목별(HS 8단위) 2013~15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액을 가중치로 두고, 한·중 FTA 이행 4년 차(2018년) 관세감축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참고문헌

[국문자료]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

[영문자료]

Santos, S. and S.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641-658.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IMF. 2019.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 Washington, DC. (October)

[웹사이트]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cn/info/1/>.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v/>.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rtais.wto.org/>.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

[기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중국해관통계(CCS).